

“사우디의 하류부문 확장은 국제석유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정제시설 확장이 완성된다면 아람코의 정제능력은 600만b/d로 늘어나게 된다.”

의 선호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만일 브라질의 국영 석유사인 페트로브라스가 상승하는 국제유가에 보조를 맞추려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다면 에탄올과의 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페트로브라스는 에탄올 수출 증대에 장기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석유회사가 에탄올 생산자는 아닐지라도 에탄올을 해외로 수송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탱커들을 이용함으로써 중요한 distributor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페트로브라스는 일본에 에탄올 공급 계약을 제의하였고, 베네수엘라에 이미 선적을 시작하였다.

에탄올에 대한 세계 수요가 증가하면 브라질은 향후 5년간 120억달러 규모의 신규 에탄올 프로젝트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에탄올 공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라질 관리들은 미국에 대해 수입 에탄올에 대해 갤런당 0.54달러의 관세와 2.5%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철회 또는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금까지는 주의를 끌지 못했으나 미국에서 에탄올 공급 부족 상황이 전개된다면 공급조정자로서 브라질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 2006/05)

사우디 아라비아 하류부문 확대지속

200만 b/d 증설 계획

사우디 아람코가 정제시설 확장을 가속화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수출용 정제시설에 대한 합작 계약이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합작 파트너로는 코노코필립스사가 안부에, 토탈사가 주베일에 각각 일산 40만배럴 규모의 시설 건설을 논의중에 있다. 또한 기존의 라스타누라의 정제시설 55만 b/d 확장 계획 가운데 11만 b/d 규모를 국제적 합작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 밖에 올해에 이루어진 주요 계약으로는 42만5천배럴의 페트로라비그 정제 콤플렉스를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이 계획은 98억달러를 투입하여 일산 24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건설하

는 것이다. 사우디아람코와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의 합작 회사인 페트로라비그사는 지난 3월에 일본국 제협력은행,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 그리고 17개 금융기관과 58억달러에 달하는 재무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인 이 시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정제 및 석유화학 복합 플랜트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라스타누라 정제시설도 23만5천b/d의 정제시설 확장 외에 석유화학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안부와 주베일의 정제시설은 새로운 저장 함량 규격이 도입되는 유럽, 아시아, 북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고품질의 청정 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두 시설은 2008-2009년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 두 공장의 합작 계약 체결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그는 이미 3월에 코노코 필립스사가 40~50억달러가 소요되는 안부 수출용 정제시설 건설에 가장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베일 시설에는 토탈 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가 일부 국영사업에 민간 참여

를 고취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정제시설의 지분 25%를 사우디증권거래소의 신규 일반공모를 통해 매각할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외국의 합작 파트너들은 안부와 주베일 시설에 대한 일반 주식공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사우디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이전에 주요 건설사업에 착수하는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람코사도 내년에 라비그 통합 콤플렉스를 신규 공모 추진하는 방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영석유회사들은 정제시설확장 프로그램을 위해 약 160억 달러의 투자를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나이미 장관이 페트로라비그 시설 비용의 70% 추가 소요를 언급했듯이 자재 코스트 상승과 계약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다. 사우디의 하류부문 확장은 국제석유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정제시설 확장이 완성된다면 아람코의 정제능력은 현재의 400만 b/d 미만에서 600만b/d로 뛰어 오르게 된다.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 2006/05)